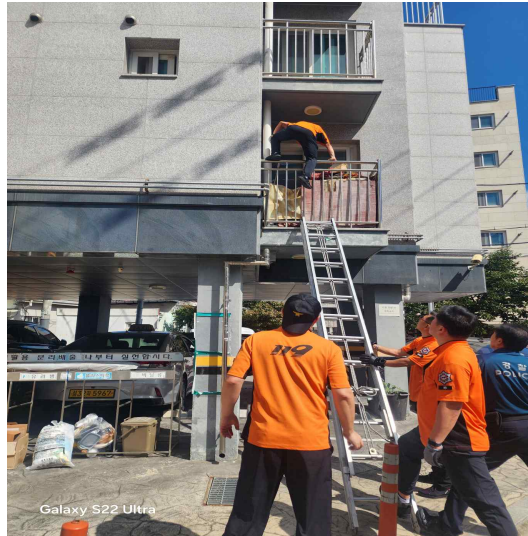


응급상황 기록부						담당		센터장	
						결재			
발생일시		2026년 09월 03일							
대상자성명		김 만 중	생년월일	1942.02.15	성별	남	연락처	010-8954-3360	
보호자		없음		이송병원					
사유		요양사 출근 후 전화 및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혼자 계신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 119로 연락하여 베란다를 통하여 문을 열게 되었음.							
조치상황		1. 요양보호사가 08시 40분쯤 출근하여 30여 분간 벨을 누르고, 전화하고 어르신이 준 열쇠로 문을 열어도 열리지 않아 어르신 걱정이 됨. 2.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어르신들 기력이 쇠하여 쓰러진 적이 빈번하여 어르신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센터로 연락하고 센터장님 지시하에 119로 연락하게 됨 3. 119 요원이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베란다로 들어가게 됨. 4. 베란다를 통하여 집안에 들어가니 어르신이 인기척도 없이 침상에 누워 계심.							
									
사후관리		1. 인기척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르신이 걱정되어 119로라도 연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맞는 열쇠를 어르신으로부터 받았으며 꼭 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심.							
담당자의견		1. 평소에 인지기능 상태가 낮아 판단력이 없어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심. 2. 혼자서 식사 및 약을 챙겨 드실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보호사 도움이 필요한 분이심. 3. 이후로는 꼭 문을 열어주기로 어르신과 약속을 함.							



Galaxy S22 Ultra



Galaxy S22 Ultra



Galaxy S22 Ultra



Galaxy S22 Ultra

